

2011. 10. 6.

#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# G20 국제회의 「세계경제위기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, 그리고 G20의 역할」

G20 Conference on  
Enhancing Global Governance  
and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G20

- 일 시: 2011년 10월 6일(목) 09:00~17:30
- 장 소: 신라호텔 영빈관 1층 토파즈홀

##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

### 세션3.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의 우선순위

[ 좌장: 조운제 서강대학교 교수 ]

- 지난 40년동안 선진 20여개국과 빈곤 20여개국 간의 소득 평균이 거의 30배에 이르렀으며, 빈곤 격차의 심화와 확산으로 G20 정상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.
- 특히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발표하고 9개 pillars에 대한 다년간 행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 노력을 약속.

- 9개 pillars 중 하나인 인프라 분야의 고위급 패널(HLP)들인 3세션 패널들은 G20의 미래 개발 아젠다를 논의하고 글로벌 정상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논의를 해야하는지에 관해 논의함.

[ 다카토시 가토 일본 국제금융센터 회장 ]

-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자료에 의하면, 2000년도 선진국 대 신흥국 간의 GDP는 63% 대 47% 로 거의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인 반면 2010년에는 각각 약 52% 대 48%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제 규모의 격차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.
  - 신흥국들의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G20은 명실 공히 세계 최상위 포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,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문은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.
- G20 개발 9 pillars 중 하나인 인프라 분야의 고위급 패널이자 전 IMF 부총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, 개발도상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증진의 필요성을 살펴봄.
- HIPC(외채과다 최빈곤국) 이니셔티브와 MDRI(부채경감조치) 덕분에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여력이 생겼고, 저소득 국가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됨.
- 최근 발간된 IMF working paper 'Financing Infrastructure in India: Macroeconomic Lessons and Emerging Market Case Studies'의 전세계 105개 선진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, 도로 및 전기 분야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통화 불균형이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.

- 특히 중국, 한국, 브라질, 칠레 등 주요 4개 신흥국 사례를 살펴 볼 때,  
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계획, ② 투자 증진을 위해 각 기구들이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기부여, ③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 자본을 운용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.

□ 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함.

- 첫째,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 재정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발은행 마련 및 활용, ASEAN Bond Market 이니셔티브와 같은 지역 투자자 풀(pool) 형성, 국제기구를 투자자로 설득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.
- 둘째,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있어 다자개발은행들의 역할이 중요하며, 이를 위해 다자개발은행들은 인프라 건설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통한 노력이 필요함.
- 셋째, 인프라 프로젝트의 준비 기금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,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투자 효과 및 수익, 재정 운용 메커니즘 및 규제 정책 마련 등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.
-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기금은 다자개발은행, 양자 협력국, 재단을 통한 사적 영역 등에서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음.

## [ 라집 랄 인도 인프라투자금융 회장 ]

- 인도의 장기적인 개발 경험은 다른 나라의 인프라 발전 과정과 G20 개발 과정에 중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제시함.
  - 인도는 끊임없는 개방과 규제 철폐를 통해 16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해왔으며, 이 과정에서 인도 정부의 역할보다 민간분야의 참여가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임.
  - 인도의 인프라 개발과정을 살펴보면, 1990년대 중반까지 유일한 참여자였던 정부의 역할이 재정적인 문제로 점차 축소된 반면 민간분야의 인프라 투자가 급증했음.
- 민간 분야의 인프라 개발 참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적영역 간의 이익 균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.
  - 민간 기업들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,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규제, 가격 조정 등의 부패에 대한 감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.
- G20은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함.
  - G20을 통해 문제 해결 관점을 넓히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며, 인프라 개발에 있어 민간분야의 참여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도 G20 내에서 협력을 통해 찾아가도록 노력해야 함.

## [ 진 리춘 중국투자공사 감사위원회 의장 ]

- G20은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각 나라의 경제, 정치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포럼으로 진화함.
  - 세계 경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G7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G20은 지리학적, 경제학적으로 적절히 가입국이 분배된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음.
  
- G20에 대해 의문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만, 금융 위기 시에 G20 지도자들이 적절한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쓴 선례에서처럼 G20은 여러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을 제공.
  
- G20은 장기적이고 단계별로 성장해 나아가야 하며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개발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  - G20 아젠다는 눈앞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급급하거나 단기적 성과를 위한 합의들이 많았으나 G20 개발 아젠다는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주제들로 수립되어야 할 것임.
  - 개발 아젠다에는 환경, 교육 개발, 인프라 개발, 국제 금융 질서 재정립 등이 포함되며,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각 나라들은 현존하는 경제, 정치적 장벽을 없애고 국제협력에 노력해야 할 것임.

## [ 리오넬 진소우 프랑스 PAI 파트너스 회장 ]

- 아프리카는 최근 성장을 통해 더 나은 개발 환경을 구축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.
  - 20년 전 GDP 침체를 경험했던 아프리카는 최근 10년 평균 5%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크게 개선된 개발환경을 맞이함.
  - 민주화 등 정치 거버넌스의 안정화, 재정 및 국내자원 활용 개선에 기반한 국내 자본의 축적, 국외로부터의 송금의 유용한 활용, IT 환경 개선 등에 기반해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개발을 위한 환경 개선을 이룩함.
-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병목현상 해결이 절실함.
  - 베닌의 경우 비록 5%대의 GDP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인구성장률을 반영하면 비록 비율은 줄었으나 수적으로는 더 많은 국민들이 빈곤선 아래서 생활하는 패러독스 현상을 경험
  - 교육 혜택을 받은 젊은층이 실업자가 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 등 사회적 조화 달성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.
-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7~8% 정도의 더 높은 성장이 요구되며 인프라 구축이 이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임.
  - 즉각적인 에너지, 교통, 통신, 관개시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,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인프라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식량안보, 빈곤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.